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EVERYTHING WE KEEP

가제 : 우리가 간직한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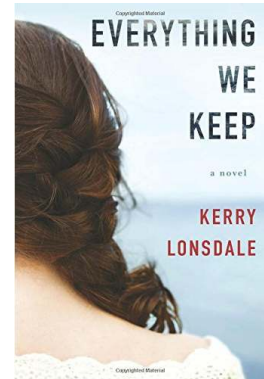
저자 : Kerry Lonsdale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6년 8월 1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결혼식을 앞두고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린 약혼자, 홀로 남은 그녀 앞에 펼쳐진 무거운 진실들

요리사인 에이미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인생 레시피'를 머릿속으로 짜 놓은 상태였다. 어릴 때부터 서로만 바라보던 제임스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이 운영해온 레스토랑을 넘겨 받아서 요리사로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는 부푼 꿈으로 가득한 계획이었다. 제임스도 결혼하면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화가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다. 결혼식이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의 꿈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식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에이미의 이 완벽한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제임스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만 것이다. 부모님 회사에 들어가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던 제임스는 멕시코로 고작 4일, 별로 길지도 않은 출장을 떠났다.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켜야 했던 그는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함께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면서 친해진 후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내고 곧바로 돌아온다고 했었다. 그러나 제임스 일행을 태우고 바다로 나갔던 배의 선장은, 잠시 모터를 점검하고 조종실로 돌아온 사이에 제임스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했다. 에이미는 물론 양쪽 집안에서 온 가족들이 나서서 그의 행방을 찾았지만 망망대해에서 아무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얼마 후, 에이미는 제임스의 형인 토마스로부터 어느 해변으로 제임스의 사체가 떠내려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실낱 같은 희망으로 견뎠지만, 그의 죽음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말았다.

제임스의 어머니는 하필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날을 장례식 날로 정했다. 에이미는 평생을 함께 하려 했던 남자와 화려한 꽃 장식으로 꾸민 결혼식장 한 가운데를 행진하기로 한 날, 눈물을 쏟아내며 장례식장에 입장하는 기구한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힘들게 찾은 장례식에서 또 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에이미의 정신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처음 만난 낯선 여자가, 제

임스가 살아있다고 말한 것이다.

결혼식을 하려던 날 장례식을 치르게 된 에이미, 그녀를 찾아온 영매와 드러나는 비밀들

그 알 수 없는 여자는 에이미가 다른 일로 얼떨떨해진 사이 갑자기 다가왔다. 제임스가 사라진 후 한참 만나지 못했던 그의 형 토마스가 에이미에게 다가와 뜻밖의 돈을 건넨 것이다. 그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무려 2억 원이 넘는 수표를 에이미에게 건넸다. 에이미는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토마스는 제임스와 계획한 대로 이 돈으로 부모님 레스토랑을 넘겨 받아 꿈을 이루라고 말했다. 에이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넋이 나가 있는 사이, 금발의 나이든 여자가 다가와 대뜸 에이미의 이름을 불렀다. 정신이 혼란스러웠던 에이미는 또 누군가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알고 위로의 말을 건네려나 보다,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을 루시라고 밝힌 그녀의 한 마디가 에이미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제임스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너무 놀라 주저앉은 에이미에게 나중에 연락하라며 루시가 건네고 간 명함을 보니, 그녀의 정체는 영매였다. 가족들이며 주변 친구들은 루시가 충격에 빠진 에이미의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기꾼이 분명하니 절대로 속지 말라고 했지만, 에이미는 루시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결국 에이미는 제임스의 행적을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하고, 파면 팔수록 하나씩 드러나는 거대한 비밀들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든다. 잠잠한 수면 아래 감추어진 거대한 진실들은 에이미의 모든 삶을 박살내버릴지도 모른다.

가장 행복하리라 확신했던 순간에 찾아온 상실과 예기치 못한 비밀, 다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 놀라운 반전과 함께 이어지는 이야기로, 한 때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것들, 우리를 언제까지고 지켜주리라 생각했던 것들 속에 감추어진 숨은 진실과 그 엄청난 영향을 에이미의 삶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론스데일의 글은 상쾌하고 자연스러우며, 거부할 수 없다. 상실에서 회복에 이르는 여행에 대한 심층적이며 전문가적인 탐색은 북클럽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확고하게 만들어준다. 이 책은 첫 페이지부터 나를 매혹하여 깊은 만족감을 주는 마지막까지 빠르게 이끌었다.

— 에리카 마크스(Erika Marks), 『The Last Treasure』의 저자

<저자 소개>

케리 론스데일(Kerry Lonsdale)은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온라인 ‘여성 소설가 협회(Women’s Fiction Writers Association)’를 설립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

제목 : MOONGLOW

가제 : 달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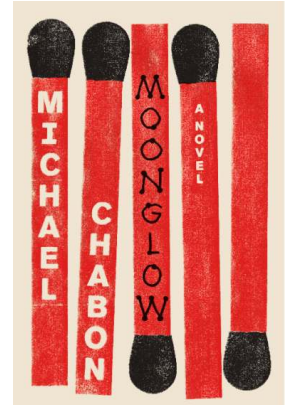
저자 : Michael Chabon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6년 11월 22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소설



폴리처 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시나리오 작가가 완성한 또 한편의 마술 같은 이야기

영화 <스파이더맨2>와 <존 카터: 바숨 전쟁의 서막> 각본 작업에 참여하며 할리우드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도 입지를 굳힌 마이클 채본이 에세이 같은 독특한 소설을 완성했다. 작가 자신과 거의 동일한 인물이 주인공인 이 소설은 그를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준 소설 『피츠버그의 수수께끼들(The Mysteries of Pittsburgh)』이 갓 세상에 나온 1989년을 배경으로, 작가가 집필 작업을 끝내고 찾아간 오클랜드의 부모님 집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를 뵈고 겪은 일들에 관한 이야기다. 약효가 너무 강력한 진통제를 복용한 탓에 정신이 혼미해진 할아버지는 죽음이 목전에 온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 저 편에 끄꽂아 두었던 일들을 손자에게 털어놓는다. 2차 대전 직전 필라델피아 남부 지역의 삶과 독일군의 침략, 미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 플로리다에 형성된 은퇴자 마을과 같은 다채로운 역사 한 가운데를 살아온 할아버지는 그에게 난생 처음 듣는 가족의 비밀과 별난 사건들을 술술 꺼내 놓는다. 과거를 회상하는 노인의 시각으로 작가 특유의 기발한 상상력을 가미해 20세기 전체를 통째로 정리한 듯한 이야기에는 개개인이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과 자라면서 자연스레 믿게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파란만장했던 할아버지의 삶을 끝내 굴복시킨 건 골암과 그로 인한 지독한 통증이었다. 독일에 서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은 베를린 장벽에 구멍이 뚫리고 있던 1989년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작가의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옮겨와 손님 방을 병실 삼아 2주째 강력한 모르핀 진통제로 버티고 있었다. 채본이 집에 도착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침대 옆에 앉자마자, 할아버지는 내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약 부작용 때문에 가끔씩 할아버지의 혀가 마비될 때면 옆에 함께 앉은 할머니가 거들었다. 할아버지는 필라델피아에 살던 시절, 겨우 서너 살 나이에 호기심 때문에 3층짜리 건물에서 고양이를 창 밖에 던져봤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으로 채본에게 전쟁을 겪으며 직접 목격한 인간의 광기와 인생 모험, 섹스, 평범한 사랑, 존재론적인 고민,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드러난 사람들의 포부와 악마적인 면면을 이야기한다.

2차 대전 전후, 기술 발달과 우주 탐사, 20세기에 큰 자취를 남긴 사건들과 인간성의 변화

소설 맨 앞에는 1958년 10월 1일자 「에스콰이어」에 실제로 게재된 광고 한 편이 사진으로 나와 있다. 작가와 성이 같은 업체 ‘채본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만든 ‘에어로비-하이 연구용 로켓’ 광고로, 미 공군이 실제로 사용하는 미사일을 1/20 크기로 축소한 모형 미사일 제품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나와 있다. 당시 돈으로 무려 5만 달러라는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들여서 만들었다는 이 모형은 장식용이 아니라 진짜 로켓처럼 날릴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채본은 할아버지가 털어놓은 비밀과 함께, 이런 광고를 내고 오직 우편 주문으로만 제품을 판매했던 ‘채본 사이언티픽’이 나중에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추적해 나간다.

독자들에게 뭔가 엄청난 사연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과 호기심을 잔뜩 불어 넣을 줄 아는 작가 특유의 입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시대에 벌어진 온갖 미스터리한 사건들에 돋보기를 들이대게 만든다. 유대인들이 모여 슬럼가를 이룬 전후 미국 대도시의 한 구석, 재소자들에게 유토피아로 불리던 뉴욕 월킬 교도소, 우주개발 프로그램이 성공하면서 ‘미국의 시대’라는 말까지 생겨났던 달 탐사 이야기 등 20세기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놀라운 사건들에 작가는 코믹한 상상력을 집어 넣고 살짝 비틀어서 소설이지만 소설이 아닌 것처럼, 자서전처럼 보이지만 자서전도 아니고 회고록 같지만 모두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준다.

기억에서 희미해진 역사적인 사건들을 꿈에 나온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되살려서 무한한 상상력으로 맛을 더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놀랍도록 풍부하고, 세밀한 감성의 이야기...(채본Chabon의) 인물들은 매우 현실적이며, 작가의 자신감 있고 표현력 있는 문장 속에서 이 인물들의 문제는 손으로 만져질 듯이 치밀하게 짜였으며, 이 소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의력 결핍 시대에 점점더 희귀한 더 깊이 있는 경험을 담고 있다.

— 미치코 카쿠타니(Michiko Kakutani), ‘Telegraph Avenue, 「New York Times」

<저자 소개>

마이클 채본(Michael Chabon)은 『The Mysteries of Pittsburgh』, 『Wonder Boys』, 『The Amazing Adventures of Kavalier & Clay』, 『The Final Solution』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쓴 작가로 풀리처상과 네블라 상, 휴고 상 등을 수상했다. 할리우드에서 제작되는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약해 왔다.

제목 : THE DEAD GIRL

가제 : 나는 죽었다

저자 : Beverley Jones

출판사: Constable

발행일: 2017년 봄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출근하면서 입었던 옷 그대로 낯선 집에서 깨어난 여자, 사라진 기억과 알 수 없는 사람들

성공 가도를 달리던 TV 리포터가 낯선 집에서 깨어난다. 정신을 차렸지만 누구의 집인지, 어쩌다 정신을 잃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날 밤 일어난 사건들이 아주 천천히 되살아나고, 퍼즐처럼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왜 하필 그 집일까? 벗어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할까?

멜라니는 아침 여덟 시도 채 되기 전에 눈을 떴다. 수면제를 삼키고 잠든 다음 날처럼 머리가 묵직하고 몸도 영 개운치 않았다. 정신도 혼미했다. 그 와중에 눈에 들어온 방안 벽지며 가구들은 온통 낯설었다. 침실인 것은 분명한데, 병원이나 호텔은 아닌 것 같았다. 아기자기한 취향을 가진 여자가 정성 들여 꾸민 가정집이 분명했다. 문득 새하얀 침대 시트에 자신의 신발에서 떨어진 모래로 지저분해진 것을 보고서야 멜라니는 신발도 벗지 않고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는다. 옷도 출근 복장 그대로였다. 까만 정장치마에 회색 블라우스, 검정색 울 코트, 단정한 까만 구두 차림 그대로인데, 왜 남의 집에 와서 잠이 들었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혹시 납치됐나 싶어서 양손으로 천천히 얼굴을 더듬어보고 눈으로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다친 곳도 없고, 췌시는 곳도 없고 피가 난 흔적도 전혀 없다. 억지로 끌려온 건 아닌 것 같았다. 일단 안전한 장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멜라니는 그제야 방안에 혼자 있었던 게 아님을 깨달았다. 침대 한쪽에 사람이 누워 있었다. 옆드린 채 등만 보이는 그는 체격이 건장한 남자였다. 멜라니는 그가 낮게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아는 사람인지 찬찬히 살펴보았다. 깔끔하게 자른 짙은 색 머리카락이며 귀에서 목까지 희미하게 남은 흉터 자국, 목선, 어느 것 하나 익숙하지 않았다. 어젯밤에 만난 사람인가? 취해서 그를 따라 이 집으로 온 건가?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그 때, 방문이 열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왔다. 향기로운 차가 가득 담긴 주전자와 토스트가 놓인 쟁반을 들고 나타난 사람은 나이트 가운을 걸친 예쁜 여자였다. 삼십 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가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는 동안, 멜라니는 왠지 민망하고 쑥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저기 진짜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여기가 어딘가요?”

전혀 모르는 가족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왜 죽었을까? 죽은 자의 진실 찾기

여자는 묵묵부답이었다. 잼이 담긴 소스 그릇 하나까지 주전자와 같은 디자인으로 완벽하게 맞춘 그 쟁반만 가만히 내려다볼 뿐, 멜라니의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잠든 남자의 등을 보더니, 그를 흔들며 깨웠다. 남자의 이름은 피터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아침 인사를 나누는 내내 멜라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잠에서 깨어난 피터도 여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을 뿐 멜라니의 존재는 눈치도 채지 못한 것 같았다. 급기야 차를 한 모금 마신 피터는 아내를 끌어당겨 사랑을 나누려고 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당황한 멜라니는 소리쳐보지만 두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멜라니는 가방을 찾아 집에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방 바깥으로 나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순간적으로 시간 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붕 뜬 기분이 들더니 잠시 후, 부엌 식탁에 앉은 채로 다시 정신을 차렸다. 분명 방 안에 있던 피터의 아내가 싱크대에서 분주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멜라니는 영문을 몰라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잠시 뒤 다섯 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부엌에 들어와서 등교 준비를 했다. 이어 피터도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와 식탁 한 쪽에 앉았다. 셋 다 멜라니가 같은 식탁에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옷을 차려 입은 피터를 보자, 멜라니의 머릿속에 이상한 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남자인데,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까?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영혼이 되어버린 여자, 서른세 살의 리포터 멜라니는 피터의 집에서 왜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지 기억을 더듬기 시작한다. 비슷한 나이또래로 보이는 피터의 아내 이브와 부부의 아들 아담, 세 사람이 오순도순 사는 집에 왜 자신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을까? 왜 다른 곳으로 나갈 수도 없을까? 그 비밀이 서서히 벗겨지는 동안,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

<저자 소개>

비벌리 존스(Beverly Jones)는 웨일즈 지역에서 TV 리포터와 신문 기자로 일하다가 현재는 사우스 웨일즈 경찰국의 홍보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실제 범죄 사건을 취재해온 경력을 살려 『Telling Stories』, 『Holiday Money』 등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파헤친 심리 스릴러 소설을 발표했다.

제목 : A SEASON TO LOVE

가제 : 사랑의 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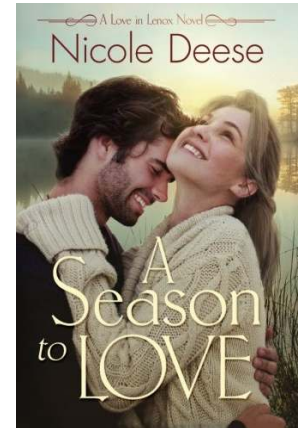
저자 : Nicole Deese

출판사: Waterfall Press

발행일: 2016년 2월 2일

분량 : 316 페이지

장르 : 소설



잇따른 불행으로 세상과 벽을 쌓고 안전하게만 살아온 삶, 그 높은 벽을 허물어뜨리는 사랑의 힘

살면서 만난 선택 앞에서, 우리가 피하거나 놓친 것은 몇 가지나 될까?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정한 기준을 내세워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을까? 밀어 부치자니 두렵고, 모른척하자니 아쉬워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시기도 기회도 다 놓쳐버리는 일은 대부분이 경험한다. 그러나 인생을 뿌리부터 뒤흔든 사건들로 누구보다 그런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며 살아온 사람도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혼자만의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스스로 쌓은 벽 앞에 앉아 있던 윌라와 그녀를 발견한 패트릭의 이야기에서, 사랑이 가장 튼튼한 가이드가 되는 그 따뜻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윌라의 인생은 몇 년 사이에 롤러코스터에 탄 것처럼 어지러운 일들만 가득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남편을 잃고, 그 슬픔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 사바나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이는 그 작은 몸에 파고든 암 세포를 없애기 위해 힘든 화학요법을 받으면서도 곧잘 이겨냈다.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항상 힘내라고 응원했지만, 윌라는 늘 두려움에 몸서리를 쳤다.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제 정말 괜찮아진 걸까, 하는 의구심이 떨쳐지지 않아서, 힘든 고비를 다 견디고도 안심하지 못했다. 사바나가 마침내 힘든 치료를 끝내고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도, 정작 아이는 신이 나서 친구 손을 붙잡고 교실로 달려갔지만 윌라는 주차장을 떠나지 못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 까봐, 그러면 곧장 달려갈 수 있도록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야 마음이 놓였다. 강박이나 다른 없는 윌라의 이런 지독한 ‘걱정병’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남동생 웨스턴이다. 학교 교사인 웨스턴은 차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던 윌라를 발견하고는 냉큼 달려와 잔소리를 퍼부었다. 동생은 이제 암울했던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하라는 말과 함께, 큰 병을 이겨낸 사바나가 인생을 마음껏 즐기려면 엄마부터 건강해져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도 건넸다. 3개월 후면 어여쁜 신부와 가정을 꾸리게 될 남동생을 보면서, 윌라는 웨스턴 나이일 때 땅에 묻어야 했던 남편을 떠올렸다. 새 출발, 새로운 일상, 가족들이나 친구들, 심리 상담사까지 모든 사람들이 윌라에게 그 단어를 거론하지만 그건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윌라도 ‘안전한 삶’을 위해 쌓아 올린 세상과의 벽을 이제는 무너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벽을 허무는 일은 용기만으로는 불가능했다.

내면의 두려움과 용감하게 맞서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두 사람의 씩씩한 사랑

얼마 후, 월라가 사는 작은 마을 레녹스에 젊은 의사가 등장한다. 의사인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들을 대신 돌보기 위해 잠시 머물기로 한 패트릭은 월라와 정반대로 모험 없는 삶은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신나고 스릴 넘치는 일에 몸을 던지며 살아온 그는 월라, 사바나와 알게 되면서 단단한 껍질 속에 틀어박힌 월라에게 세상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험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 그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월라의 가족들보다 월라를 더 많이 이해하고, 무엇이 월라의 마음속에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만드는지도 이해했다. 그리고 월라의 내면에 누구보다 강인한 용기가 숨어 있다는 것도 알아챘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조심스럽게 한 발씩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줄 친구라는 것, 그리고 패트릭 자신이 그 안내자로서 제격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잔소리만 하는 남동생과 달리 패트릭은 월라가 스스로 나설 때까지 기다려주고 두려워하는 순간을 함께 한다. 월라가 직접 내면의 두려움과 마주하고 이겨내도록 끈질기게 도와준 패트릭 덕분에, 월라는 높게 쌓기만 하던 세상과의 벽을 허물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관계가 자연스레 우정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도달했을 때, 월라와 패트릭은 정답이 없는 갈림길 앞에 나란히 선다. 패트릭은 세계를 유랑하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더 없는 행복과 자유로움을 누렸는데, 잠시 머무르려던 마을은 그 여행을 이제 그만 끝내라는 신호를 자꾸만 보낸다. 월라도 패트릭 덕분에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새 인생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지만, 다시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두 사람이 함께한 단 한 번의 계절, 그 짧은 시간이 평생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을까?

단순한 로맨스에 머물지 않고, 가슴 깊이 남아 있는 상처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선사하는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의 힘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 소개>

니콜 디스(Nicole Deese)는 현대 로맨스 소설을 사랑하는 작가로 『Letting Go』 시리즈와 ‘Love in Lenox’ 시리즈의 첫 번째 소설인 『A Cliché Christmas』는 아마존 킨들 스토어에서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다.

NON-FICTION

제목 : GETTING TO "YES AND"

가제 : “좋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의 전략

저자 : Bob Kulhan

출판사: Stanford Business Books

발행일: 2017년 1월 11일

분량 : 280 페이지

장르 : 경영



웃음을 ‘뺑’ 터트리게 만드는 즉흥 코미디의 기술을 비즈니스 전략으로 발전시킨 참신한 경영법

술 새 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고 모두가 발버둥치지만, 그저 뻔한 격려와 충고로는 직원들은 물론 회사 경영진의 사기도 끌어올리기 힘들다. 경영은 이렇게 해야 하고, 직원들은 저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책이나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썩 그럴듯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되는데, 비즈니스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분야에서 지난 10년 이상 비즈니스에 가장 유용한 툴을 제공해 왔다. 바로 즉흥 코미디다. 스케치 코미디, 촌극, 콩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즉흥 코미디가 비즈니스와 만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여러 명의 코미디언들이 회사를 찾아와 영 어색해하는 점잖은 직원들에게 즉흥 게임이나 짤막한 코믹 연극을 시도해보도록 유도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큰 회사에서 각자 자기 일만 하느라 얼굴 정도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낱낱대며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다른 부서 직원들과 인사도 나누고 친해지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과연 업무에도 도움이 될까? 비즈니스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줄까? 16년 동안 ‘비즈니스 즉흥극’이라는 이름으로 이 같은 사업을 운영해온 저자는 즉흥극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사업 전략과 연계시키면,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단언한다. 사뭇 진지한 태도로만 일관하던 사람들이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협상을 끌어내는 과정을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수월하게 해낼 수 있고,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생각을 모으는 브레인스토밍을 적시에 실시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발산하며 조직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다. 그저 한 차례 웃고 떠드는 시간에 그치지 않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령이 이 책에서 단계별로 소개된다.

사람들을 금세 웃음짓게 하는 즉흥 코미디의 밑바탕에는 민첩한 사고력이 자리한다. 저자는 인지기능과 사회성에 관한 심리학, 행동 경제학,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비즈니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기술과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돌파구를 찾는 팁을 제시한다. “좋습니다.”라고 일단 무엇이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다음, “그리고 말입니다.”라는 말을 곧바로 덧붙이고 주어진 제안에 가치를 내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덧붙이면서 더 나은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대응 방식과 함께 회의 시간을 보다 생산성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법, 협력은 강화하고 갈등을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하는 법,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목차>

머리말. 피나타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1장.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

2장. 일단 이렇게 말해보자 - ‘좋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3장. 브랜드의 중요성

4장. 에너지의 독립성

5장. 팀의 힘

6장. 상상할 수 있는 것, 구체적인 것

7장. 딱 걸렸어

8장. ‘나’와 리더십의 결합

9장. 코끼리 먹는 법

10장. ‘그리고 말입니다... 잠시만요, 더 있다고요!’

<저자 소개>

밥 쿨란(Bob Kulhan)은 비즈니스 즉흥극을 가르쳐주는 경영 컨설팅 업체 ‘Business Improv’의 창립자이자 CEO다. 펍시, 포드 자동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유수의 대기업들에게 조언을 제공해 왔다. 더불어 듀크 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 BREAK THROUGH TO YES

가제 : 협력하는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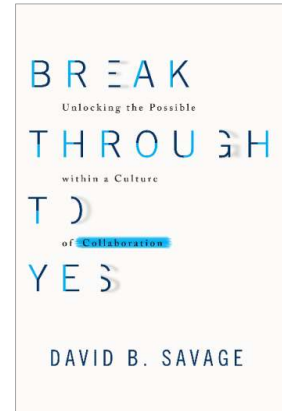
저자 : David B. Savage

출판사: Elevate

발행일: 2016년 3월 22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경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 협력하는 문화를 정립하는 10단계 전략

한 개인을 둘러싼 세상, 국가, 지역사회, 단체에서는 물론 더 좁게는 각 가정의 해체나 가야 할 문제들이 나날이 많아지고, 또 복잡해지고 있다. 심지어 아직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도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개개인의 교육 수준이 높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무궁무진한 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었던 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갈등과 오해, 부조화가 지속된다면 쌓여가는 문제에 발목이 잡혀 밝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다. 생산성은 옅고, 시간과 체력은 쓸데없이 낭비하는 상황, 즉 인간이 만든 시스템과 조직 문화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규제와 법적인 장치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저자는 이 모든 문제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현대 사회의 비즈니스 환경과 네트워크 안에서 혁신을 유도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방법을 이 책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회사, 정부기관과 같은 큰 조직체와 함께 가족,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든 그룹 단위에서 협력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광범위한 전략을 습득할 수 있다. 또 협력이 왜 중요하고, 현대 사회에서 협력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고찰을 시작으로 저자가 40년 넘게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면서 갈고 닦은 협력의 기술과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 저자가 수행한 연구와 조사 결과가 제시된다.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먼저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실제 상황에서 협력하려는 시도가 자꾸만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협력에 필요한 요소를 찾아본다. 2부에서는 그룹이나 조직에서 협력의 의미나 의도를 오해하는 일이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 생각해보고, 하나의 일에 이해관계자 전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의지를 보이는’ 원리를 토대로 소개한다. 이어 3부에서는 조직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10단계 전략이 제시된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공표하는 1단계를 시작으로 에너지의 흐름과 미래를 모두 긍정적으로 바꾸는 10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4장에서는 큰 조직 내에서 소그룹이나 팀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협력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관리자 직책을 부여하는 것이 회사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설명한다.

아이디어며 해결방안, 전략이 과거와 같이 경영진이 다 만들고 직위가 낮은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따르라고 전달된다면 지금과 같이 경쟁이 극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상의하달식 경영에서 벗어나, 같은 그룹, 같은 조직에 속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대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수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협력이라는 가장 값진 결실을 얻을 수 있다. 협력이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끄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1부. 협력이 시급하다

- 미래는 협력에 달렸다
- 협력과 지속성
- 게임 (이하 생략)

2부. 협력의 원칙

- 협력이 왜 오해를 받을까
- 협력의 가치
-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실질적인 방법
- 각자가 속한 세계 속에서 (이하 생략)

3부. 협력을 위한 10단계 필수 전략

1.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공표하라
2. 대립되는 계획에 유의하라
3. 갈등도 포용하라
4. 다양성을 추구하라
5. 협력 방안을 설계하라 (이하 생략)

4부. 돌파구

부록

<저자 소개>

데이비드 B. 세비지(David B. Savage)는 32년간 캐나다 정유업계에서 일했다. 이후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Savage Management Ltd.'를 설립하여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협력을 유도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조언해왔다. 저서로는 『Ready Aim Excel』 등이 있다.

제목 : LIFT

가제 : 영향력을 끌어올려라

저자 : Tom Miller

출판사: Elevate

발행일: 2016년 1월 19일

분량 : 154 페이지

장르 : 경영



‘영향력’의 새로운 정의, 실질적인 리더를 만들어내고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회사건 그냥 모임이건,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계층이 생긴다. 공식적인 혹은 암묵적인 리더나 대장이 있고, 그 밑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과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혼자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 이용해먹을 대상을 물색하는 사람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조용히 구분되는 것이다. 어떤 위치에 있건, 이들 모두 조직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고민한다. 이 고민은 소속감, 유대감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욕구와 열망에서 비롯된다. 그 고민 끝에 자신의 위치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속한 그룹이 못마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금세 이런 의문으로 확대되곤 한다.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 속에서 애쓰다 한들 뭐라도 바꿀 수 있을까? 나라는 존재가 정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매일 회사에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도 자신은 그 조직에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향력 있는 직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팀을 이끄는 리더도 아니고,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인정하는 유명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므로 조직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없거니와 자신이 속한 위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회사에서 그럴 만한 직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믿음을 당연시해왔다. 조직 체계에서 보상과 업적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저자는 이 믿음에 반기를 들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제는 조직 내에서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좌우하고 회사의 전체 수익을 결정지을 제품을 개발하고 업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몇 안 되는 임원이 아닌 수많은 ‘보통 직원들’이다. 이미 확립된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것만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저자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구성원들을 일깨우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이끌면서 더 나은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법과 규칙이 아무리 훌륭한 사회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사회보다는 못하고, 리더십이 아무리 탄탄한 회사라도 직원들이 직접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게 제시하고 문제가 생겨도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제품 브랜드 자체를 만들고 갈고 닦는 회사보다는 못하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무리 많은 학교라도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서 먼저 손을 들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학교보다 나을 수는 없다. 저자는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보다 대다수인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회 속에서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발굴하는 사회가 훨씬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런 조직, 그런 사회로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영향력’의 전통적인 뜻과 현대 사회에서 달라진 의미를 비교하고 이 새로운 정의에 따라 개인, 사회, 비즈니스,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략을 알려준다.

<목차>

- 1장. 건물 바로 앞에 설치된 폭탄
- 2장. 영향력의 두 가지 패러다임
- 3장. 딥 엘름(Deep Ellum) 구하기
- 4장. 여러분이 속한 곳을 정의해보자
- 5장.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건강한 환경이 필요하다
- 6장. 거울을 보라
- 7장. 여러분의 브랜드부터 강화하라
- 8장. 선택의 힘
- 9장. 실천하라

『Lift』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끝없는 충고의 소음을 관통해 우리에게 이른다: 지위와 가계에 기반한 낡은 영향력의 패러다임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된다.

— 월터 맥파랜드(Walter McFarland), 『Choosing Change』의 공저자

<저자 소개>

톰 밀러(Tom Miller)는 직원 참여와 조직문화 개선을 도와주는 경영 컨설팅 업체 ‘Symbolist’의 창립자이자 대표다. 다양한 매체에 글을 게재하고 정기적으로 강연도 실시하고 있다.

제목: CHILDREN WHO FAIL AT SCHOOL BUT SUCCEED AT LIFE

가제: 학창시절에는 낙오자, 인생에서는 성공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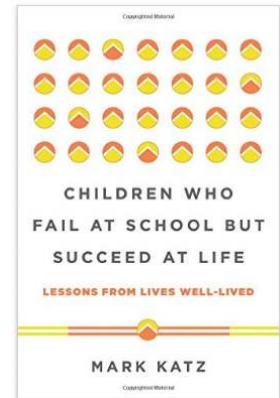
저자: Mark Katz

출판사: W. W. Norton & Company

발행일: 2016년 4월 11일

분량: 304 페이지

장르: 교육



학업도, 교우 관계도 실패했지만 인생에서는 성공을 일군 사람들에게 배우는 교육의 미래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삶이 충분히 의미 있고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그 만족스러운 평가가 학창시절의 경험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과 정 반대로 학창시절에 겪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학교만 떠올리면 실패와 낙오자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함께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학창시절이 소위 말하는 ‘흑역사’가 되어버린 까닭은 성적이 나쁘거나 또래 친구들보다 학업에 늘 뒤처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샀던 일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 결국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도 많다. 혹은 멀쩡히 졸업은 했지만 학교 생활을 떠올리면 자신의 존재가 아무 쓸모도 없고,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바보 같고, 아무 희망도 없다고 여겼던 시간들이 떠오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아이들을 두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느니, 정상적으로 살아갈 리 만무하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그런 억측과 달리 누구보다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주어진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학습 장애로 고통 받고, 학업 능력이나 행동에 큰 문제가 있었던 학생들,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나쁜 기억 때문에 학교생활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상을 뒤집고 잘 사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평범하게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왜 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확신할까? 저자는 철저한 사례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생활에 실패하면 미래도 불확실해진다는 추측을 통쾌하게 뒤집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지도 방향을 잃고 주체성도 잃은 현대 사회의 학교가 말아야 하는 역할과 성공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임상학, 사회 심리학, 인지 신경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된 방대한 연구 자료와 암흑기와 같았던 학창 시절을 딛고 성공을 일구어낸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본다.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나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삶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성공의 정의는 개개인이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는지, 또 살면서 개인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저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스스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전제를 토대로, 인간이 보유한 귀중한 특성이자 능력인 회복력의 위대함을 발휘하여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인간의 옹졸한 특성상 학교 생활을 잘 해내지 못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학교마다 상담 교사며 담임 교사, 학부모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이어나가도록 돕느라 애를 쓰다 보니 오히려 그런 노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들을 그저 골치 아픈 낙오자로, 인생 실패자로 더 쉽게 낙인을 찍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는 교사와 학교, 상담자, 학부모, 의료보건 분야의 전문가들 모두에게 지금 학습 문제나 행동 문제,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청소년 범죄와 같이 보다 심각한 문제에 빠진 학생들에게도 더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목차>

1부. 관찮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

1. 어린 시절: 왜 실패할까?
2. 인간의 회복 능력과 정서적인 인내의 한계
3. 성인기: 어떻게 성공할까?
4. 회복력을 발휘하려면

2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5. 틀린 생각,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라
6. 한 번에 하루씩 실패를 방지하라
7. 한 번에 하루씩 키워가는 자기 규제, 자기 통제의 기술
8. 한 번에 하루씩 개선해가는 인생의 건강
9. 한 번에 하루씩 청소년 범죄와 폭력을 예방하고 줄여가자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마크 카츠(Mark Katz)는 30년 이상 임상 심리학자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샌디에이고에서 학습 발달 전문 심리상담가로 활약하고 있다. 덴버 아동병원에서 아동행동학 분야에 공헌이 큰 의료인에게 수여하는 ‘로센베리 상(Rosenberry Award)’과 아동, 성인 주의력결핍 환자 치료의 업적을 인정 받아 해당 분야의 명예의 전당 상(Hall of Fame Award)을 수상했다.

제목 : IT'S MY PLEASURE

가제 : 좋아서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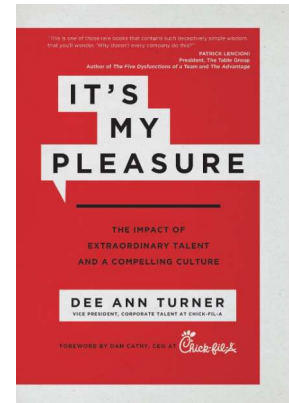
저자 : Dee Ann Turner

출판사: Elevate

발행일: 2015년 11월 3일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경영



재능 있는 인재 선발, 역량 개발, 직원과 소비자 모두를 사로잡는 문화가 만들어낸 성공의 비결

68년 전통을 가진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칙필레(Chick-fil-A)’는 매년 가맹점을 내고 싶다는 신청자가 3만 명이 넘고, 가맹점을 관리하는 본사 사무직 지원자도 2만 5천명이 넘어설 만큼 매력적인 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전 분야를 통틀어 소비자 서비스가 가장 우수한 브랜드 10위에 항상 포함되며 소비자들에게도 호감 가는 기업으로 인정 받고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30년 동안 칫필레에서 인력 관리를 담당해온 저자는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이 놀라운 성과가 ‘사람’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그냥 괜찮은 회사로 그친 것도 아니다. 일하는 사람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회사로 자리를 잡자, 경쟁 업체보다 매주 영업일수가 하루 적은데도 순 매출은 두 배 가량 더 많은 결과가 자연스레 따라왔다. 저자는 훌륭한 재능을 보유한 인재를 꼼꼼하게 찾아서 고용하고, 그 재능이 빛을 발휘하도록 꾸준히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칫필레의 고집스러운 경영 원칙이 이 모든 성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광고 전문가가 되기 전, 잠시 머무를 직장으로 칫필레를 택한 저자는 회사 측의 제안으로 인력 관리 업무를 시작했고 이후 지금까지 30년 넘게 칫필레의 DNA이자 핵심 자원인 ‘사람’을 관리해왔다. 스스로를 ‘기회 창출자’라 칭하는 저자는 칫필레에 지원했다가 두 번 낙방하고 세 번째 지원도 무려 넉 달 동안이나 진행된 면접 절차를 거쳐야 했던 기억을 되짚으며, 알면 알수록 꼭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던 칫필레의 첫 인상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한다. 이윤을 높이는 일에만 혈안이 된 대부분의 회사들과 정반대로 회사와 직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에 더 혈안이 된 칫필레의 조직 문화는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창업주의 설립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도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저자는 우수성, 진실성, 너그러움, 충실함으로 세분되는 이 원칙이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조직 전체의 윤리적 투명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지난 수십 년간 입증된 사례와 성과를 통해 설명한다. 세밀하게 수립된 사업 계획과 함께 사업의 목표, 사업의 핵심 가치가 명확하게 정의되면 성공은 자연스레 따라오며, 이 모든 일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느 회사든 골머리를 앓는 문제인 채용과 직원들의 역량 관리만 잘 해도 거의 다 해결된다고 단언한다. 저자는 직접 인력을 관리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토대로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일과 신입 직원이 업무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이끄는 법, 지원서를 검토하는 요령 등 실질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한다.

직원 개개인과 조직이 도덕적으로 진실하면 성공은 알아서 따라온다는 칙필레의 확고한 원칙은 물질주의를 맹비난하거나 물질의 허무함에 좌절하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조직이든 가장 중요하지만 늘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한 인력관리의 핵심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목차>

매력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핵심

- 매력적인 조직문화 만들기

매력적인 조직문화는 팀에서 나온다

- 재능의 선별
- 재능의 유지
- 재능의 관리
-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해야만 할 때
- 내어주고 받는 요령

팀 내부에 매력적인 조직문화의 싹을 틔워라

- 사명감
- 직원의 리더십이란
- 정신력 강화
- 기회 창출
- 충성심을 높이는 법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디앤 터너(Dee Ann Turner)는 칙필레(Chick-fil-A)의 부사장으로 30년 이상 재능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인력 개발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 신시네티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저널리즘과 신학교육을 공부하고 클레이튼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이어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예모리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제목 : THE FIGHT FOR FREEDOM

가제 : 자유를 위한 투쟁

저자 : Marcus Ferrar

출판사: Crux Publishing Ltd

발행일: 2016년 3월 15일

분량 : 302 페이지

장르 : 역사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운 사람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투쟁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

인류가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고 투쟁한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사, 민주주의자, 정치인, 노예, 인권 운동가, 사상가들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까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관습을 없애기 위해, 예술계의 지독한 편견을 부수기 위해, 혹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고 정부가 하는 일을 당당히 따져 묻기 위해 싸움에 나섰다. 동유럽과 중앙 유럽 지역에서 해외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투쟁의 현장을 수시로 지켜보았던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과 그들을 굴복시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인류가 때로는 폭력까지 동원하면서까지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을 벌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유를 얻고자 끝까지 저항하게 만든 동기는 무엇일까? 저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두려워한 싸움에 뛰어들어 규칙과 법에 굴복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낸 역사적인 영웅들과 혁명가, 학자, 성직자, 페미니스트, 군인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선택한 길과 힘겹게 얻어낸 결과를 보여준다.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은 성패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미 특별한 가치가 있다. 로마제국의 지배에 반대하며 반란을 일으킨 검투사 스파르타쿠스, 그와 같은 이유로 반기를 들었던 고대 이세니족의 왕비 보아디케아부터 링컨, 간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자유를 위해 투쟁한 마틴 루터킹과 넬슨 만델라, 아웅산 수치와 같은 인물들의 업적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 이들이 투쟁에 나선 결과 자유가 증대되었는지, 혹은 오히려 축소되었는지 냉정하게 평가한다. 더불어 자유라는 이름으로 왕을 참수하거나 발전소를 폭파시키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비폭력적인 방법만이 윤리적인 투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유럽을 나치의 무력적인 지배로부터 구하기 위해 연합군이 선택한 전쟁과 간디, 마틴 루터킹이 택한 비폭력적인 투쟁의 차이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찰한다. 인간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비이성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기독교에서 주장하듯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 반드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저자는 자유가 악의적인 의도로 이용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책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인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자유 투쟁의 사례와 의미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영웅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한 것은 페르시아 황제 크세르크세스나 스탈린, 히틀러와 같은 폭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더 무서운 적이 된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 싸우던 자가 원하는 성과를 얻은 후 폭군이 되어버린 일도 있었다. 저자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들과 그 투쟁이 가져온 결과를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 그 피나는 노력을 되짚어본다.

<목차>

경찰은 떠났다

시작

마그나 카르타부터 구텐베르크까지

의회와 탄생과 계몽운동

혁명의 시대

노예 해방

세계대전 - 자유의 죽음, 그리고 재탄생

제국과 자유

동유럽의 자유와 독재정부

바로 집 앞에서 일어난 혁명

아프리카 - 지옥, 그리고 귀환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마커스 페러(Marcus Ferrar)는 「로이터(Reuters)」 해외 특파원 출신으로 주로 동유럽과 중앙 유럽 지역을 취재했다. 현재는 저술가,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공동 집필한 『SLOVENIA 45: Memories of Death and Destruction after World War II』 등이 있다.